

2021 년 8 월 31 일

HSBC 코리아, 업무 공간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 기대

- HSBC 코리아의 124 년 역사 전시 안내문 설치
- “미래 지향적인 근무 환경” 정책의 일환
- 관련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이브리드 업무 모델 선택 가능

HSBC 코리아는 획기적으로 단장한 업무 공간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8 월 31 일에 밝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오프닝 행사가 HSBC 역사 전시 안내문 앞에서 8 월 30 일에 개최되었으며, 정은영 HSBC 코리아 대표, 심준보 노조 대표, 임미선 최고운영책임자, 진봉균 업무 공간 혁신 프로젝트 책임자, 은종원 행우회장이 참석했다. HSBC 전시 안내문은 HSBC 가 124 년 간 국내에서 성장해 온 역사를 담고 있다.

새로운 공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공간과 휴식장소가 마련되어 있어, 직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좌석, 카페같은 분위기의 자유로운 공간(워크카페),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포커스 룸), 스탠딩 데스크 등이 있다.

이번 업무 공간 혁신은 HSBC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근무 환경” (Future of Work) 전략의 일환이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업무 모델이 담겨 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업무 장소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일 하느냐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 근무제도, 협업, 직원 웰빙이 촉진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이러한 조직 문화속에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고객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다.

은행의 업무 공간이 이러한 전략 추진에 적합한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정은영 HSBC 코리아 대표는 “지난 120 여 년간 HSBC 코리아는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 성장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외국계 은행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미래 지향적인 근무 환경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100 년의 성공을 기약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보도자료 문의:

서채원 부분부장

02-2004-0882

chaewon.suh@kr.hsbc.com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 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64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HSBC 그룹의 자산은 2조 9천 7백 60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